IDG
STRATEGIC
MARKETING SERVICES

IDG Summary | BI_QLIK

"모두가 분석가가 되는 BI", 차세대 분석 플랫폼의 이해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수많은 BI 업체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나아가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반향으로 비즈니스 부서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분석 플랫폼이 부상하고 있다. 결국 BI 솔루션이 데이터 분석을 돕더라도 결국 실제 의사결정은 사람의 몫이다. 직접,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라.

Qlik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본 PDF 문서는 IDG Korea의 프리미엄 회원에게 제공하는 문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DG Korea의 허락 없이 PDF 문서를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 전재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분석가가 되는 BI", 차세대 분석 플랫폼의 이해

송혁 이사 | 클릭 프리세일즈컨설턴트

BI업계가 말하지 않는 오래된 고민이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도입되어 온 BI 솔루션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용이 어렵다든지,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등 여러가지 이유에 맞춰 BI 업체들은 수많은 활용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그리 효과가 없었다.

분석 결과가 비즈니스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는 기존 BI

가트너에 따르면, 2017년까지 CIO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BI와 각종 분석 기술이 될 것이며, 기업 또한 B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BI 서비스, 모바일 앱, 소셜 BI 등에 수백 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이 전세계 300대 금융업체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응답자의 절반만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고객 접점 직원들이 분석 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60%가 넘었다.

그동안 기업들은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잘못된 BI 소프트웨어를 선택해 왔고, 최종 사용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솔루션에 투자를 한 셈이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경험과 관행을 통해 이뤄졌으며,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 문화가 정착된 기업은 상당히 드물다.

포레스터 리서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홉킨스는 "현재 4명 가운데 3명의 아키텍트들이 자사를 데이터 주도형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에서부터 보다 많은 데이터로부터 좀더 빠르게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분석 결과가 비즈니스 결과물로 연결되는 기업은 29%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BI 솔루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CIO닷컴은 기업들이 BI 솔루션을 선택, 배치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9가지 실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문제를 파악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서둘러 BI 솔루션을 구매하는 것이다. 먼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규명하고, 기업 경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정확

히 어느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제대로 된 ROI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광범위한 '범용' 솔루션을 구입하는 것이다.

– BI 솔루션을 구입하기 전,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IT 부서는 BI 툴을 최종 사용자와 단절된 상태에서, 어떠한 형태의 '동의'나 '호응'을 구하지 않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IT 부서가 구입한 BI 툴이 최고의 BI 툴이라도 실제 활용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큰 편익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단순히 일련의 교육과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다. BI에서 나온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과소 평가하는 기업들이 많다.

– 보안이나 데이터 거버넌스를 고려하지 않는다.

BI 솔루션 선정 시, 데이터 거버넌스를 경시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모든 직원들이 데이터 전부에 접근해 활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기업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데이터 보안 정책과 법적 의무에 입각해 새 BI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 기능에 현혹되고,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를 망각한다.

대다수 기업이 BI 솔루션을 평가할 때, 보고서 작성 및 쿼리, 대시보드, 검색과 발견, OLAP 및 분석, 데이터 시각화, 예측 분석, 성능 관리 KPI(밸런스 스코어 카드)와 같은 기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기능인 '통합'은 종종 망각한다. 오피스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엑셀과 통합되는 툴은 많다. 그러나 아웃룩과 통합되는 툴은 훨씬 적다.), BI 객체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기업 웹사이트에 탑재하는 것, 모바일 기기와의 호환성 등은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ERP 등의 기업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서비스와의 통합도 고려하지 않곤 한다.

– 확장과 조정이 가능한 솔루션을 선택하지 않는다.

유연성이 없는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도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다. 특히, 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 IT업체의 경우, 새로운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분석 툴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 필요에 맞게 조정 및 확장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BI 솔루션을 선택해야 한다.

– 모바일 지원을 감안하지 않는다.

BI 솔루션을 선택하면서 모빌리티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 그러나 BI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 적용 대상만큼이나 중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간단한 KPI가 종이 보고서만큼 유용한 경우가 많다.

– 도입을 지나치게 서두른다.

빠른 도입과 성공적인 도입은 전혀 다른 두 단어다. BI 솔루션을 빨리 도입한다고 항상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다.

– 불충분한 교육, 혹은 비용을 잘못 계산한 교육

많은 기업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그리고 몇 주에 걸친 사용자 단기 교육에 BI 예산을 소진한다. 그러나 오늘날 BI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가치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용자가 시스템에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 인텔리전스(수집한 데이터)와 보고 기능의 장점을 활용하지 않는다.

BI 솔루션에서 값진 정보를 수집하고도, 이를 공유하거나 분석,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 BI 분석에 있어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수집한 정보를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 위험을 경감하고, 정보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내려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BI 솔루션 구매 주체, IT에서 비즈니스로 전환 추세

지난 수년동안 BI 솔루션의 구매 주체가 IT 부서에서 비즈니스 부서로 전환됨에 따라 BI 및 분석 플랫폼 시장이 대변혁을 일어났다.

가트너에 따르면, IT 부서가 이끌던 리포팅 중심의 BI가 2016년이 들어서면서 비즈니스 부서 중심의 셀프 서비스 분석으로 초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가트너의 BI 및 분석 플랫폼 부문 매직쿼더런트에서 지난해까지 선도기업으로 자리잡았던 BI 빅4 업체들이 모두 탈락한 가운데 클릭과 타블로,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선도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포레스터의 브라이언 홉킨스는 일괄처리 방식인 기존 BI로는 순식간에 밀려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이 대두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를 저장한 뒤에 분석하는 기존 BI와는 달리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분석하는 BI 솔루션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다.

포레스터는 실시간 분석과 데이터 과학이 통찰력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기존 BI를 붕괴시킬 것이며, 데이터와 통찰력, 그리고 의사결정 및 실행 간에 벌어져 있는 간격을 좁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클릭(Qlik)이다. 클릭은 23년 전 창업 초기부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조직 전반에서 집단 인간 지성을 활용해 최적화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클릭은 데이터가 단순한 소

스에 불과하며 이를 활용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용자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비즈니스 부서를 위주로 영업해왔다.

데이터에 내재된 살아있는 스토리를 이해하라

클릭(Qlik)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각 분석 플랫폼을 제공한다. 클릭의 연관 모델은 사용자가 데이터 내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클릭은 제한된 수의 데이터 전문가에게만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모두에게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장에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기업의 확장성과 IT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은 자신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 BI 솔루션들은 기업의 민첩성을 제한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민첩성과 속도는 개인에게 현재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클릭은 이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의 혁신을 이뤄왔다. 기존 BI업체들은 몇주 또는 몇개월만에 BI를 배치할 수 없다. 이들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효과를 전제로 제품을 판매하고 구축한다. 클릭은 사용자가 BI 솔루션 구입에 앞서 일단 한번 사용해보길 권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가치를 입증한다.

클릭은 일반적으로 다른 툴이 간과하는 숨겨진 통찰력을 찾는, 좀 더 복잡한 분석이 차별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클릭 몇번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BI 솔루션을 이용하려면 우선 데이터세트에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든 사전 설정을 해야 한다. BI 솔루션을 구축하기 전, 9개월~12개월 후에 비즈니스 부서가 필요한 쿼리들을 IT 부서가 알아내기란 불가능하다. 매번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클릭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채택했다. 사전에 무언가를 수집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선택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통합함으로써 쿼리의 제약이 없다. 이 방식이 바로 연관 데이터 인덱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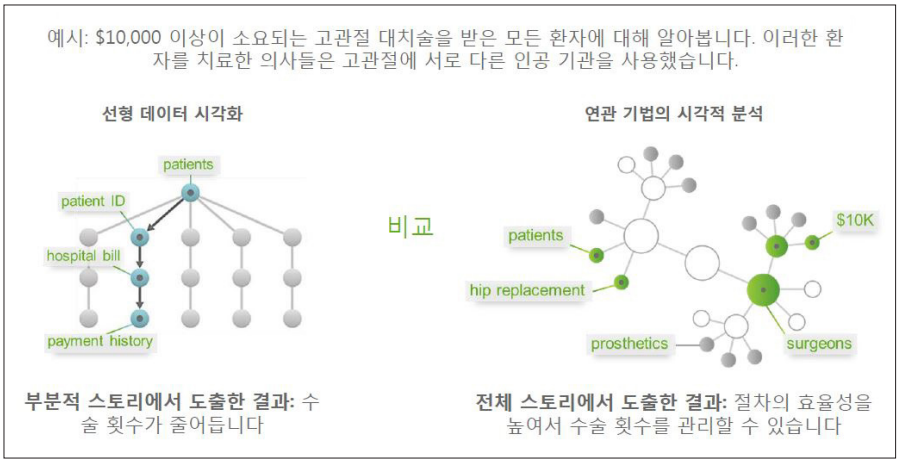
클릭의 차별화 기술, 클릭 인덱싱 엔진

클릭의 차별화 기술은 강력한 연관 데이터 인덱싱(Associative Data Indexing) 엔진인 QIX(Qlik Indexing Engine, QIX)에 있다.

클릭 인덱싱 엔진은 클릭만의 자체 고유한 기술로, 지난 10년간 클릭 제품의 기반이 되어왔다. 연관 데이터 인덱싱은 복잡하고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세트 간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툴이 간과하는 숨겨진 통찰력을 찾는, 좀 더 복잡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기존의 계층적, 또는 쿼리 기반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데이터 관계는 숨겨져 있다.

클릭은 연관 데이터 인덱싱 및 동적 계산을 제공해 사용자가 모든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가능한 모든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발생한 일에 그치지 않고, 이유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까지 파악할 수 있다.

선형 데이터 시각화와 연관 시각화 분석의 차이 – 보건 분석의 사례



즉, 사용자는 데이터 관계에 대한 사전 정의된 계층 또는 사전 형성된 개념에 제한받지 않고,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를 최종적으로 파악하고 탐색할 수 있다.

클릭 인덱싱 엔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빠르고, 확장 가능한 분석 ▲탐색 증가와 제약 감소 ▲모빌리티 완벽 처리 ▲임베디드 커스텀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 있다.

더 빠르고 확장 가능한 분석

QIX 엔진 덕분에 자유로운 형식의 탐색 중에도 매우 빠른 경험을 누릴 수 있다.

- **인메모리(In-memory) 처리** : QIX 엔진은 인메모리 속도를 최적화해 데이터를 원본 크기의 10%까지 압축한다.
- **컬럼러 데이터(Columnar data) 저장** : QIX 엔진은 테이블 전체를 처리하는 대신에 계산을 수행하면서 일련의 정의된 칼럼(Column)에 집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쿼리(Query)는 몇 개의 데이터 칼럼만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이 훨씬 빨라진다.
- **온디맨드 수집** : QIX 엔진은 더욱 신속한 분석을 위해 상황에 따라 취합을 계산한다.

탐색 증가와 제약 감소

사용자는 원하는 모든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QIX 엔진을 통해 사용자는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 묻는 방법을 몰랐던 질문조차 알게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 **자동 연관 인덱싱** : QIX 엔진을 여러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고 키 필드를 맵핑(Mapping)하며 자동으로 데이터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 **회색의 힘** : 때로는 가장 중요한 통찰력이 현재의 분석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 있을 수 있다. 기존 SQL 방식은 쿼리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볼 수 있어 전체 데이터의 일부분만 확인 가능했다면 QIX 엔진은 자동으로 이 데이터를 회색으로 강조 표시해 통찰력 발견을 돕는다.

– **스마트 검색(Smart Search)** :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사용자에게 구글 또는 네이버와 같이 단순하고 직관적인 자연스러운 검색을 제공한다. QIX 엔진은 모든 데이터 소스에 걸쳐 가능성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석을 가속화한다.

모빌리티 완벽 처리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데스크톱 등 기기에 상관없이 HTML5 지원 브라우저만 있다면 문제 없이 배치할 수 있다.

– **진정한 리스폰시브 디자인(responsive design)** : 많은 기업이 모바일을 핵심 기능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릭은 기기의 종류에 상관 없이 구축한 후 어디에서든 아무 기기에나 배치할 수 있다. 리스폰시브 디자인은 기기의 형식이나 상호작용 방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적응한다.

임베디드 커스텀 플랫폼

클릭 분석 플랫폼(Qlik Analytics Platform, QAP)은 각 기업 내 BI 솔루션에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런 방식으로 자사의 클릭 센스(Qlik Sense)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

– **개방형 표준 API** : 클릭 분석 플랫폼은 개방형 표준 API를 통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QIX 엔진에 접근할 수 있다.

– **매시업(Mashup)과 확장** : 개발자는 쉽고 빠르게 복잡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클릭 분석 플랫폼에 함께 제공되는 매시업 및 확장 API를 이용해 사용자가 시각화를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Governance)

누가 어디에 접근하며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하지만 거버넌스와 경직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사용자에게 자신감을 선사한다.

– **관리형 셀프 서비스 라이브러리** : 공유 라이브러리 모델은 기업의 분석가와 사용자가 사전에 구축된 관리형 데이터 모델, 시각화, 완전한 분석 시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응 가능한 정책 기반의 보안 룰** : 구성이 매우 자유로운 클릭 관리 콘솔(Qlik Management Console, QMC)과 보안 API를 통해 보안 룰을 어느 수준으로든 사용자 지정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사용자는 완전한 셀프 서비스 모델을 통해 언제든 자체 데이터를 추가하고 분석하며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 **스토리텔링(Storytelling)** : 내장된 스토리텔링 기능을 통해 통찰력과 결과를 공유할 때도 거버넌스를 보호한다.

시스코, 1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과 4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글로벌 네트워크 업체인 시스코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시스코가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스코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사 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 데이터까지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스코가 제안하는 폭넓은 제품군은 각각의 제품 발표 일정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시스코 고객들 또한 다양한 제품과 출시 일정을 갖고 있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적인 고객을 위한 지원 및 유지 측면에서 복잡성을 자아낸다.

시스코 직원들은 쉽고 효과적으로 약 5억 라인의 복잡한 고객 및 영업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한 마디로 시스코는 실행가능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위한 셀프 서비스 솔루션을 원한 것이다.

시스코 운영 매니저는 데미안 바르세이는 "IT 팀은 회사 도처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에 둘러쌓여 있었다"며, "우리는 단지 시각화를 제공하고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데이터를 의미있는 정보와 실행력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통찰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시스코는 5년이라는 테스트 기간동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제품을 탐색하고 리뷰했다. 시스코는 영업 운영팀과 판매 인력에게 클릭뷰를 배포했다.

바르세이는 "여러 BI 플랫폼을 조사해보니, 클릭뷰가 우리 니즈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클릭뷰가 갖고 있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아주 쉽게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시스코는 오라클, 하둡, 테라데이타로부터 나온 자체 데이터를 클릭뷰에서 통합했다. 그런 후, 사용자들이 접속하고 보고, 통찰력을 발견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대시보드를 만들었다. 영업팀이 상당히 빠르게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파악하게 되면서부터 클릭뷰 대시보드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훌륭한 자원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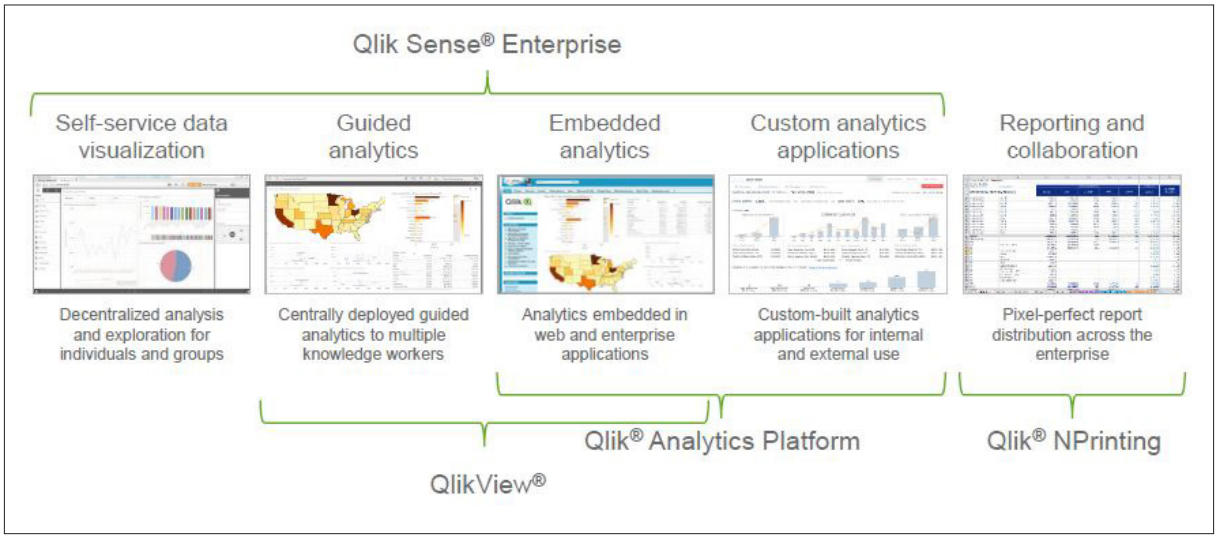
클릭뷰를 배포한 이래로 시스코는 자체 ROI에 대해 밝혔다. 시스코는 지금까지 4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했으며, 그들이 현재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추가할 수 있었던 지원 및 서비스 계약 부문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매출을 거뒀다.

2014년 6월부터 국내 비즈니스를 시작한 클릭은 현재 150여 개의 공공, 유통,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제조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최고의 셀프서비스 분석 솔루션, 클릭 센스

클릭은 의사결정 시점에 시각적인 분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릭의 솔루션은 클릭센스(Qlik Sense), 클릭센스 클라우드(Qlik Sense Cloud),

클릭 제품군



클릭뷰(QlikView), 클릭 애널리틱스 플랫폼(Qlik Analytics Platform), 클릭뷰 엔프린팅(QlikView NPrinting), 클릭 데이터마켓(Qlik DataMarket) 등이 있다.

클릭 센스는 차세대 셀프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탐색 및 검색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대화식 시각화 분석을 누구나 할 수 있다.

클릭 센스는 클릭뷰 사용자들을 통해 입증됐으며 특허를 받은 클릭의 2세대 엔진 기술인 QIX(Qlik Indexing Engine)에 구축된다.

클릭 센스는 직관적인 탐색, 스마트한 검색 및 시각화를 통해 더욱 빠른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며 데이터 스토리텔링 및 모빌리티를 통해 지식 공유 기반을 더욱 넓힌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 기능을 통해 정확도와 안정성도 강화하는 최고 수준의 제품이다. 클릭 센스는 모두를 비즈니스 전문가로 만들어 주며, 강력함과 유연성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셀프 서비스 방식을 통해 기업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며 더욱 빠르게 행동하고 대응할 수 있다.

클릭 센스는 사용자가 신속하게 정보를 탐색해 중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스마트하고 반응성이 뛰어난 HTML5 클라이언트에서 첨단 시각화 및 검색 환경을 제공한다.

클릭 센스는 사용자 환경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직관력 활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클릭 센스 사용자는 어떠한 제한이나 경계 없이, 어디에서든지 선택 및 검색 같은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을 통해 질문할 수 있다. 글로벌 스마트 검색(Global Smart Search)을 사용하면 키워드를 사용해 전체 데이터세트를 검색해 통찰력을 얻고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스마트한 대화형 시각화는 데이터의 의미를 제공하는 새롭고도 혁신적인 기

술로, 화면 크기에 맞춰 정보를 표시하는 반응성이 뛰어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클릭 센스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통찰을 얻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 간 간과하기 쉬운 숨겨진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클릭센스만 있으면 누구나 비즈니스 분석가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분석을 하기 위해 보고서나 변경 사항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데이터 객체를 서로 연결하거나 복잡한 SQL 쿼리를 작성하지 않아도, 제어되는 중앙집중식 데이터, 측정치, 객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다양한 소스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데이터만 신속하게 로드하고 조합할 수 있다.

IT WORLD

테크놀로지 및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최적의 미디어 파트너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차층인 기업 IT 책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보다 효과적으로 IT 환경을 구축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ITWorld는 단편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D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방대한 정보와 전세계 IT 리더들의 경험 및 의견을 통해 글로벌 IT의 표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단순한 하나의 소스일뿐, 의사결정은 사람에게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바로 사람 입니다.

Qlik의 연관 모델은 사용자가 데이터 내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Qlik은 사용자가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통찰을 얻고, 의사결정 시점에 가장 많은 가치를 전달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해보세요.

Qlik Sense 다운로드: http://www.qlik.com/us/try-or-buy/download-qlik-sense
Qlik Korea 페이스북 방문: https://www.facebook.com/qlikkorea/

Qlik